

< the other 영화상영 제안서 >

제안서
-후원 요청문

성정치 위원회 the other에서는 새로운 운동의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성정치 문화제를 개최하는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제라는 것이 '문화'제인 만큼, 그리고 문화는 일상 그 자체를 지칭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정치'라는 개념이 우리들의 일상 그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제'라는 것이 하나의 운동 방법으로 적합한 것일 것입니다. 문화제를 하나의 사업만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문화제'라는 형식은 여러 가지의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일상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이지만 문화제라는 것은 여전히 문화'제'입니다. 즉, 개막식과 폐막식이라는 시공간적 제한 속에서 펼쳐지는 일련의 행사입니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문화제를 치루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의 주제를 택해서 학우들과 고민을 하고 그것을 문화제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행사가 끝나면 그 주제에 대한 고민이 사그라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학내 '성'에 대한 담론의 밑바탕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저항점으로 만들기까지 끈질기게 이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제기한 개막식과 폐막식이라는 제한된 시공간을 뛰어넘어 한 학기 동안 지속적인 '문화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즉, 단 며칠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행사'들을 한 학기로 분산시키고, 이것을 일회적인 행사가 아닌 일상 속에서의 저항을 만들어내는 작업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전달매체의 역할만을 하는 언어화된 '자보'를 뛰어 넘고 자보라는 것 자체가 저항적일 수 있는 다양한 자보의 형태들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기존의 문화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문화제'를 시도해보고 동시에 이것은 실험적인 '성정치 운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는 3차례에 걸친 영화 상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문화제를 할 때 빠지지 않는 또 하나의 '행사'입니다. 저희는 영화상영을 하나의 운동 방법으로 사고하고자 하며, 이것은 영화가 어떠한 메시지를 단순히 전달하는 매체일 뿐만 아니라, 영화라는 것 자체가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시대를 대중매체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한 만큼 대중매체 속에서 지배 이데올로기가 강화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즉 영화는 정치적인 場입니다.

이러한 취지 속에서 저희가 이번 학기에 다룰 주제를 '훈육'입니다. 다양한 사회제도들을 통해 인간은 사회에 복무하는 인간형으로 훈육됩니다. '일부일처제 이성애주의 가부장적 부르조아 자본주의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보수주의의 바람이 불면서 현재 우리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부장제를 강화시키고 아이들에 대한 통제와 규율화를 강화시킨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최근 노출에 대한 단속이나 청소년 야간 통행 금지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들은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문란해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보면 지배 권력에 저항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처한다는 방안은 결국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즉, 우리를 보다 보수적인 방법으로 '훈육'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학 내에서 자치권을 탄압하려는 시도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

9/24 - [The Wall] : 파시즘적인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원되는 가족제도, 교육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주인공 핑크는 사회제도들이 설정하는 '벽'들의 무게를 느끼며 그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스러워 한다. 지배권력은 인간을 훈육시키면서 인간을 분열시킨다. 인간들은 '다스리는' 방법은 각 개인을

단 한 '개인'으로 고립시키는 것이다. 영화가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한 파시즘적인 전체주의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도 부여준다. 과연 전쟁과 파시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멀리 지나간 역사적 사실일 뿐인가. 아니면 바로 우리가 그 속에서 현재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통일 TV의 후원을 받아 이미 상영을 했습니다.)

10월 2째 주 (10/9일 경)

-[Full Metal Jacket] : 70년대 미국.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정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젊은 남성들은 군대에 가서 혹독한 훈련을 시작한다....군대에 간다는 것은 조국을 위한 일이며 '조국'을 위한 일이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남성들은 '조국'의 부름에 언제나 따르고, 복종을 배운다. 이들은 군대를 통해 훈육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군대 제도가 의무화되어 있다. 남북한의 대치 상황이라 어느 나라보다도 기간이 길다. 그런데 군대라는 곳은 단순히 이 나라의 민중들을 지킬 병사들을 배출하는 것만은 아니다. 국가 권력을 존속시키고 이것은 곧 가부장제를 존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가라는 것은 언제나 남성성으로 표상되어 왔으며 전쟁이란 항상 남성성을 분출시키는 장의 역할을 해왔다. 군대는 엄연히 이 사회에 복무할 수 있는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훈육의 장치이다. '진짜 사나이'를 만드는 곳이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소외와 맹목성을 형성하는 철저한 위계와 복종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를 볼 수 있다.

10월 5째 주 (10/30 경)

-[Rapist] : 한 남성의 생활을 그린다. 이 남자는 어느 여자와 순간적으로 '사랑'에 빠지며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여자들을 흥적인 강간을 저지른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비디오에 녹화를 해둔다. 여기에서 우리는 강간을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역학 관계를 볼 수 있다. 이 남성은 자신이 항상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진짜 남성'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 남성성이란 여성을 '사랑'의 이름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이다. 여성들은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성적인 행동에 복종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강간을 저지르고 난 후 그 사실을 숨기고 그 여자를 보호하는 척 한다. 강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회에서는 여성을 먼저 심판한다. 그녀가 원했는지. 그녀가 유발한 것은 아닌지. 법정에서도 여자는 설 곳에 확고하지 않다.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 강간. 이 속에서 여성들은 버림을 받고 혼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극단적인 복수를 택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영화에서 비추어지는 행위들은 엄연한 강간이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이 이 흥적인 행위들을 어떻게 모호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남여 간에 구조적인 권력 관계를 은폐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희 성정치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영화들은 준비하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이 제안서를 올립니다.

소요 예산 : 액정 대여 80,000원 (40,000원x2)

기타 선전 비용 20,000원

총 100,000원